

일양성-상이성 반성개념 쌍을 통한 라이프니츠의 무구별자 동일성의 원리 비판

백 승 환
(서울대학교 철학과 대학원)

I

칸트 초월철학Transzendentalphilosophie에서, 특히 그의 『순수이성비판』에서¹⁾ 일양성-상이성, 일치-상충, 내적인 것-외적인 것, 질료-형식으로 짝지어져 등장하는 4종 8개 반성개념들은, 칸트 스스로가 종래 이성주의철학들과 대결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라이프니츠의 단자론과 대결하는 과정에서, 그의 초월철학 전면으로 내세웠던 핵심개념이다. 이는 무엇보다 「초월적 분석학」의 <부록>으로 달려있는 <반성개념> 장²⁾의 내용들을 통해 상세하게 기술되고 있

1) 이하 논의에서 『순수이성비판』을 인용함에 있어서는 널리 통용되는 관례대로 제1판[초판, 1781] 인용의 경우 알파벳 “A”에 뒤이어서 쪽 수를 기록하고, 제2판[재판, 1787] 인용의 경우 알파벳 “B”에 뒤이어서 쪽 수를 기록하며, 이와 함께 국역본으로서 2006년 후반기에 출간될 예정인 백종현 교수의 책을 참조하여 인용하고, 원문에서 격자로서 표기되어 있는 곳은 짚게 표기하여 인용한다. 그리고 『순수이성비판』이 아닌, 여타 칸트 저술들을 인용함에 있어서는 칸트 전집으로 베를린 학술원판을 참조하여 인용하되, 학술원판 권 수는 로마숫자로 표기하고, 학술원판 쪽 수는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며, 경우에 따라서 우리말의 논저명을 먼저 약칭하여 기록한 후에, 이에 연이어서 학술원판 권 수와 쪽 수를 표기한다.

I.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hrsg. von R. Schmidt, Hamburg 1956.

(백종현 옮김), 『순수이성비판』, 서울: 아카넷, 2006(출간예정).

_____, *Gesammelte Schriften*, hrsg. von der Königlich Preuß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 // von der Deut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 zu Berlin, Bde. 1-24, 27-29, Berlin 1900-.

다. 즉, 순수 감성형식으로서의 시·공간을 밝혀냈던 「초월적 감성학」의 내용들과 순수 지성형식으로서의 범주들을 밝혀냈던 「초월적 분석학」의 내용들을 한 데 종합하여 요약·정리하며, 이 두 형식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아 결국 현실에서 정당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던 종래 형이상학 체계들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는 비판적인 메시지의 끝자락에, 그러니까 비판철학 가장 중심부에, <반성개념> 장은 위치하고 있고, 바로 이곳에서부터 4종 8개 반성개념들은 탐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해 아래, 이번 글에서는 라이프니츠를 위시하여 등장했던 종래 이성주의철학자들과의 비판적인 대결 과정에서 거듭 주목됐던 <반성개념> 장의 논의들을 쫓아가보고자 한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일양성-상이성 반성개념 쌍을 통해 비판되는 라이프니츠의 “무구별자의 원칙Satz des Nichtzuunterscheidenden(無區別者 同一性の原理principium identitatis indiscernibilium)”³⁾(A264=B320)을 재차 검토하며,⁴⁾ 논리적 반성을 초월적 반성에 다름 아닌 것으로서 사취하

2) 이하 논의에서 계속해서 <반성개념> 장으로서 약칭하여 표기하게 될 것의 원제목은 <부록: 경험적 지성사용과 초월적 지성사용의 혼동에서 생긴 반성개념들의 모호성에 대하여Anhang: Von der Amphibolie der Reflexionsbegriffe durch die Verwechslung der empirischen Verstandesgebrauchs mit dem transzendental>이다.

3) 이는 여타 칸트 저술에서, 독일어로 달리 번역되어 “무구별자 동일성의 원칙 Grundsatz der Identität des Nichtzuunterscheidenden”(『형이상학의 진보』: XX-282)이라고도 표현되고 있다. 이하 논의에서, 무구별자의 원칙, 무구별자 동일성의 원리, 무구별자 동일성의 원칙 등은 그것들의 세부적인 의미 구별 없이 모두 동일하게 파악하며, 위의 세 가지는 더 이상의 언급 없이 서로 시시적절하게 호환하여 사용토록 한다.

4) 이와 관련하여, 라이프니츠의 저술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는 아래 내용들도 아울러서 참고해 보도록 하라.

(…) 모든 단자들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필연적이다. 왜냐하면, 자연 안에서는 서로 완벽하게 같고, 그것들에서의 내적 차이, 또는 내적 규정성에 기초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 두 존재자는 결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G.W. Leibniz, 『단자론』: § 9.

(…) 만약 서로 전적으로 구별될 수 없는 두 사물이 실존한다면, 나는 그것들

고, 일반 논리학을 초월 논리학에 다름 아닌 것으로서 부당전용하는 데서 불거지는 모순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들춰내 보고자 한다.

II

이제, 일양성-상이성 반성개념 쌍을 통해 비판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자. 칸트에 따르면, 라이프니츠는 한낱 논리적 반성에 기초하여 일반 논리학의 무모순적 사고 가능성으로부터 그 자신의 존재론을 구축했다. 다시 말해, 라이프니츠는 “순전히 사물들 일반의 개념들에만 타당한 그의 무구별자 동일성의 원칙을 [아무 반성 없이] 감관의 대상들(現象體 世界)에까지 연장”(A272=B328)하여 적용함으로써, 결국 우리의 “자연인식Naturerkenntnis에 적지 않은 확장을 가져왔다”(A272=B328)라고 믿게 됐던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이와 같이 잘못 적용되어 나타났던 라이프니츠의 무구별자 동일성의

이 두 사물일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 전제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저 위대한 충분 근거물에 어긋나는 것이다.
G.W. Leibniz, 『라이프니츠와 클라크의 서신교환』: 5-62, (1716. 8. 18.)

(…) 두 실체가 전적으로 같으면서, 단지 수적으로만 서로 다르다는 것은 참이 아니다.
G.W. Leibniz, 『형이상학논고』: § 9.

이하 논의에서 라이프니츠의 저술들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우리말로 논저명을 먼저 약칭하여 기록한 후에, 연이어서 쪽 수 내지, 권, 장, 절 수를 기록하되, 쪽 수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고, 권 수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로마숫자 대문자로 표기하며, 장 수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로마숫자 소문자로 표기하고, 절 수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다시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한다. 이에 더해 라이프니츠와 여타 철학자들 간의 편지글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서로 서신교환했던 쌍방 철학자를 모두 명시하되, 서신횟수와 그 서신이 실려 있는 책의 쪽 수를 모두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고, 이에 아울러서 서신교환 일자[년(年), 월(月), 일(日)]을 괄호 안에 표기한다. 또한 라이프니츠의 전집으로 게르하르트C.I. Gerhardt가 편집했던 판본 역시 함께 참고하여 인용한다. 보다 구체적인 서지사항들에 대해서는 본고 마지막의 참고문헌 목록표를 살펴도록 하라.

원칙이란 무엇인가? 잠시, 아래 인용문을 살펴보자.

만약 두 개체가 전적으로 유사하고, 동일하며, 한 마디로 말해 그 자체 구별 불가능하다면, 개별화의 원리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내가 감히 말하건대, 이 경우에는 그 어떤 개체적 구별도 없을 것이며, 그 어떤 상이한 개체도 없을 것이다.⁵⁾

위와 같이, 라이프니츠의 무구별자 동일성의 원칙은, 두 존재자가 질적으로 동일하여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면, 이 둘은 결국 수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원칙은, 두 존재자가 그것들의 개념에서 동일하여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면, 이 둘은 결국 같은 개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이와 같은 이해 아래에서, 라이프니츠는 그의 무구별자 동일성의 원칙으로부터, 이와 필수 불가결한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는 개별화의 원리 역시 정당하게 확립하려 하며,⁶⁾ 결국 이 두 원리에 기초하여, 그가 “부분들이 없는 단순한 실체einfache Substanz ohne Teile”⁷⁾라고 정의했던 단자들의 체계, 다시 말해 단자론을 펼치고자 한다.

그렇지만, 라이프니츠가 더 이상의 반성 없이 이와 같은 형이상학 체계에로까지 나아가기 전에, 칸트는, 일양성-상이성 반성개념 쌍을 바탕으로, 먼저 그가 표상들을 감성에서 서로 비교하였는지, 혹은 지성에서 서로 비교하였는지에 대해 물어본다. 그리고 이 물음의 연장선상에서, 칸트는, 라이프니츠가 여타 철학자들, 특히 클라크S. Clarke와의 서신교환 과정에서 이미 검토해서 살펴봤던⁸⁾ “두 물방울zwei Tropfen Wasser”(A272=B328)의 관련 논의들에 대해 다시 주목한

5) G.W. Leibniz, 『신인간지성론』: Buch II, Kapitel xxvii, § 3.

6) G.W. Leibniz, 『단자론』: § 10.

7) G.W. Leibniz, 『단자론』: § 1.

8) 라이프니츠는 클라크S. Clarke와의 서신교환 과정에서 아래처럼 말을 한다.

(…) 나는 감각적 사물들 가운데서, 서로 구별되지 않는 두 사물은 결코 발견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즉, (예를 들어) 정원 안에, 전적으로 유사한 두 나뭇잎과 두 물방울은 발견될 수 없는 것이다.

G.W. Leibniz, 『라이프니츠와 클라크의 서신교환』: 5-61, (1716. 8. 18.)

다. 잠시, 아래 칸트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도록 하자.

물론, 만약 내가 사물 그 자체로서 물방울을 그것의 모든 내적 규정들의 측면에서 안다면, 나는 두 물방울의 전체 개념이 일양한 경우에, 하나를 다른 하나와 상이한 것으로서 여길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물방울이 공간상의 현상이라면, 그것은 그것의 장소Ort를 한낱 지성에만 (개념들 가운데unter Begriffen) 갖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 외적 직관에도 (공간상에im Raume) 갖는다. 그리고 여기에서 물리적 장소들은, 사물들의 내적 규정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다. 장소 a에 있는 다른 사물과 완전히 유사하고völlig ähnlich, 똑같은gleich 사물이 장소 b를 취할 수도 있고, 그것은 두 사물이 내적으로 서로 아주 다른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A272=B328)

여기에서 다시 문제되고 있는 것은, 일양성-상이성 반성개념 쌍을 통해 비교되는 것이 사물 자체[지성의 대상]이나, 현상[감성의 대상]이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공간이 라이프니츠의 생각에서처럼 개념[지성형식]으로 간주되는 것이나, 칸트의 생각에서처럼 직관[감성형식]으로 간주되는 것이나 하는 것이다.⁹⁾ 칸트에 따르면, “한 대상이 (...) 동일한 내적 규정들(質과 量)을 가진 것으로서 드러날 때, 그 대상은, 그것이 순수 지성의 대상으로 여겨진다면, 언제나 동일한 것이고, 여럿이 아니며, 오로지 한 사물(數的 同一性)이다. 그러나 대상이 현상이라면, 개념들의 비교는 전혀 문젯거리가 되지 않고, 설령 개념들과 관련해서는 모든 것이 일양하다 할 지라도, 이 현상의 장소들의 상이성Verschiedenheit der Örter dieser Erscheinung이 동시에 (감관의) 대상 자신의 수적 상이성 numerische Verschiedenheit des Gegenstandes (der Sinne) selbst의 충분한 근거”(A263=B319)가 된다. 다시 말해, “장소들의 상이성은, 더 이상의 조건 없이, 현상으로서의 대상들의 다수성과 구별을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가능하게möglich 할 뿐만 아니라, 필연

9) S. Körner, (강영재 옮김), 『칸트의 비판철학』, 서울: 서광사, 1983, pp.112-113.

적어도록notwendig 만드는 것”(A272=B328)이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라이프니츠는 그의 무구별자 동일성의 원칙으로 단자론을 확립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표상들이, 감성에서 서로 일양하게-상이하하게 비교되는 것인지, 혹은 지성에서 서로 일양하게-상이하하게 비교되는 것인지를 따져 살펴보아야만 했다. 왜냐하면, 지성 중에서는[곧, 개념상으로는] 아무 차이 없이 동일하게 존재하는 두 물방울이 결코 가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감성 중에서는[곧, 직관상으로는] 시·공간적 차이만으로도 서로 다른 것으로서 간주되는 두 물방울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¹⁰⁾ 그러므로 이제, “만약 A와 B가 그것들의 내적 규정에서 전적으로 일양하다면, 그것들은 하나이며ein, 동일한dasselbe 사물로서 간주되어야만 한다”(『형이상학의 진보』: XX-282)라는 내용으로 표현됐던 라이프니츠의 무구별자 동일성의 원칙은, 그가 생각했던 바와 달리, 그 원칙의 적용범위가 보다 좁혀져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저 그럴듯한 법칙은 [어디까지나] 자연의 법칙Gesetz der Natur이 아닌, [한낱] 개념들에 의해 사물들을 서로 비교하는 분석적 규칙analytische Regel”(A272=B328)일 따름이기에, 결코 감성 중에까지 연장하여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단지 지성 중에서만 타당하게 사용되어야만 한다.¹¹⁾

그렇다면, 라이프니츠는 단지 지성 중에서만[곧, 개념상으로만] 타당하게 적용되는 무구별자 동일성의 원칙을, 왜 감성 중에까지[곧, 직관에도까지] 연장하여 적용하려 하였는가? 그 이유는 바로, 라이프니츠가 논리적 반성과 이에 기초하는 일반 논리학에 토대해서만이,

10) 왜냐하면, 설령 개념상으로는[곧, 지성 중에서는] 두 물방울이 전적으로 일양하다 할지라도(예컨대, 크기: 1cm, 모양: 타원, 색깔: 무색 등등으로), 이것들이 직관상으로는[곧, 감성 중에서는] 다시 ① 시간적 측면에서 상이하하게 파악될 수 있고(예컨대, 어제의 물방울, 오늘의 물방울 등등으로), 아울러서 ② 공간적 측면에서 상이하하게 파악될 수 있기(예컨대, 나뭇잎 위에 놓여 있는 물방울, 나뭇잎 아래에 놓여 있는 물방울 등등으로) 때문이다.

11) G.H.R. Parkinson, “Kant as a Critic of Leibniz, The Amphiboly of Concepts of Reflection,” in *Revue Internationale de Philosophie*, 35, Wetteren, 1981.

다시 말해 “모든 대상들을 오로지 지성 및 그것의 사고의 추상된 형식적 개념들과 비교함으로써만이, 사물들의 내적 속성들을 인식”(A270=B326)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그리하여 결국에는 어떻게든 현실에서 “직접 확인할verifiable 수 있고, 직접 증명할testable 수 있는 분석명제만이, 진리이자, 참이라고 생각”¹²⁾했기 때문이다. 이 후에도 라이프니츠의 이러한 생각은, 그가 진리를 이성적 진리[필연적 진리]와 사실적 진리[우연적 진리]로 구분한 뒤, 다시 후자[사실적 진리, 우연적 진리]를 전자[이성적 진리, 필연적 진리]와 같은 모습으로, 즉 동일명제identischer Satz로서 환원시켜 파악하려 했던 것에서도 역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¹³⁾ 이와 관련하여, 라이프니츠의 생각이 보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되고 있는 아래 편지글에 주목해 보도록 하자.

필연적이든지, 우연적이든지, 보편적이든지, 특수적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참인 모든 긍정명제들의 경우에서, 그것들의 술어개념들은 어떻게든 그것들의 주어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길 이외에는 내가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¹⁴⁾

12) G. Dicker, *Kant's Theory of Knowledge*, Oxford: Oxford Univ. Press, 2004, p.16.

13) 라이프니츠는 그의 『단자론』에서, “진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성적 진리vérités de raison와 사실적 진리vérités de fait가 바로 그 두 가지이다. 이성적 진리는 필연적이고, 그것의 반대가 불가능한 반면, 사실적 진리는 우연적이고, 그것의 반대가 가능하다”(『단자론』: § 33)라고 주장하며, 술어개념들이 주어개념 안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성적 진리[필연적 진리]와 술어개념들이 주어개념 안에 암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실적 진리[우연적 진리]를 서로 구별했다. 그리고서 그는, 이성적 진리[필연적 진리]를 지배하는 논리법칙으로 모순율을 명시했고(『단자론』, § 31), 사실적 진리[우연적 진리]를 지배하는 논리법칙으로 충분 근거율을 명시했다(『단자론』, § 32). 그렇지만, 이후 논의에서 라이프니츠는 모순율과 달리, 충분 근거율을, 모든 진리들의 법칙이자, 모든 현존들의 법칙으로 동시 적용하여 사용함으로써, 결국 그의 철학에서 사고Denken와 존재Sein가 동일하게 간주되는, 그러니까 무구별자 동일성의 원칙 역시, 지성Verstand 중에서도 또한 감성Sinnlichkeit 중에서도 아무 구별 없이 적용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됐다.

윤선구, 『라이프니츠에 있어서의 의지 자유문제와 단자론』, 『철학』 제52집, 1997, p.148.

이상에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라이프니츠는 현실에서 보아지는 모든 사태들을, 결국 주어-술어 명제구조로서 환원하여 생각함으로써,¹⁵⁾ 단지 개념들의 비교만을 통해 사태들의 참·거짓을 판별하려 하였으며, “현상들의 조건으로 제시”(A264=B320)됐던 시·공간을 간과함으로써, 그의 무구별자 동일성의 원칙역시, 아무 반성 없이, 지성 중에서 뿐만이 아니라, 감성 중에서까지도 타당하게 적용하려 했다.

그렇다면, 단지 지성 중에서만 타당하게 적용되어야만 했던 라이프니츠의 무구별자 동일성의 원칙은, 왜, 어떤 이유에서, 감성 중에까지 부당하게 적용됨으로써 결국 오류에 빠져들고 말았는가? 이 오류는, 궁극적으로 라이프니츠가 충분 근거율의 두 의미를 서로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데서부터 기인한다. 아래 인용문을 살펴보자.

나는 충분 근거율을 통해, 다른 결론들보다도 특히 서로 구별되지 않는 방식으로 실재하는 두 절대적 존재자 two real, absolute beings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추론하게 됐다. 왜냐하면, 만약 서로 구별되지 않는 방식으로 실재하는 절대적 존재자가 둘 이상 존재한다면, 신과 자연은 아무 이유 없이 그것들의 질서에서 다른 어떤 존재자와 다르지도 않은 존재자를 만들어낸 것이 되기 때문이다.¹⁶⁾

이제, 위의 인용문을 통해, 라이프니츠의 철학에서 무구별자 동일성의 원칙이라 불려졌던 것은 충분 근거율로부터 도출됨이 밝혀진다. 그러니까, 라이프니츠는 “신과 자연은 아무 이유 없이[곧, 충분 근거율을 고려하지 않아] 다른 어떤 존재자와 다르지도 않은 존재자를 만들어내지는[곧, 무구별자 동일성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기 때문에”¹⁷⁾ 충분 근거율이 현실에서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는 한에서는, 이에 의존하여 타당성이 가능되는 무구별자 동일성의 원칙 역시 어디까지나 현실에서 정당하게 인정되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14) G.W. Leibniz, 『라이프니츠와 아르노의 서신교환』: 10-63, (1686. 7. 14.)

15) F. Copleston, (김성호 옮김), 『합리론』, 서울: 서광사, 1994, p.441.

16) G.W. Leibniz, 『라이프니츠와 클라크의 서신교환』: 5-61, (1716, 8. 18.)

17) G.W. Leibniz, 『라이프니츠와 클라크의 서신교환』: 5-61, (1716, 8. 18.)

이다. 그리고서 그는, “충분 근거율과 무구별자 동일성의 원칙으로 대표되는 이 두 대(大) 원리는 형이상학의 상황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모든 학문들은 이제, 이 두 대(大) 원리에 기대어서, 차츰 실재적이고, 논증적인 방식으로 변모해나가기 시작했다”¹⁸⁾라고 말하면서 스스로가 주창했던 철학 원리들에 대해 크게 자화자찬하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부터 이미, 라이프니츠는 충분 근거율의 두 의미를 서로 구별하지 않고 사용함으로써, 결국 오류에 빠져들고 있다. 왜냐하면, 지성[공, 개념, 예지체] 중에서만 타당하게 적용되는 충분 근거율을 통해서만 라이프니츠의 생각과도 같이, (질적으로 같은) 두 절대적 존재자의 존재 가능성이 (여기서는 시·공간적 조건들이 고려되지 않아, 수적으로 다른 두 존재자의 존재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기에) 부정되는 것이지만, 감성[공, 직관, 현상체] 중에서만 타당하게 적용되는 충분 근거율을 통해서만 라이프니츠의 생각과는 달리, (질적으로 같은) 두 절대적 존재자의 존재 가능성도 (여기서는 시·공간적 조건들이 고려되어, 수적으로 다른 두 존재자의 존재 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이기에) 긍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고Denken[공, 지성, 개념, 예지체] 영역에서 타당하게 적용되는 충분 근거율과 존재Sein[공, 감성, 직관, 현상체] 영역에서 타당하게 적용되는 충분 근거율은 서로 분명하게 구별되어 살펴져야 하며, 이를 통해서만 충분 근거율에 의해 설명됐던¹⁹⁾ 무구별자 동일성의 원칙 역시 올바르

18) G.W. Leibniz, 『라이프니츠와 클라크의 서신교환』: 4-37, (1716, 7. 2.)

19) 두 가지의 충분 근거율을 구별하지 않고 서로 뒤섞어서 사용하는 라이프니츠의 불합리는 특히 아래 주장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 나는 모든 논증에서, 두 가지의 원리를 사용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 모순을 포함하는 모든 것은 거짓이다[공, 모순율]라는 원리이고, 그 중 다른 하나는 모든 진리들에 대해 (...) 어떤 이유가 주어질 수 있다[공, 충분 근거율]라는 원리이다. (...) 그러니까, 술어의 개념은 항상 주어의 개념 안에 명시적으로든 암시적으로든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며, 이는 내적 종류의 명제들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외적 종류의 명제들에 있어서도, 또한 필연적 진리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우연적 진리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G.W. Leibniz, *Die philosophischen Schriften*, hrsg. von C.I. Gerhardt, Bd. 7, Berlin, 1875-1932, SS. 199-200.

게 규정될 수 있다.²⁰⁾ 이와 관련하여, 논리적(형식적) 원리로서 사용되어야만 하는 충분 근거율과 초월적(질료적) 원리로서 사용되어야만 하는 충분 근거율을 서로 비교·대조하여 설명하는 쇼펜하우어의 목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보도록 하자.

“각각의 명제는 하나의 근거를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은 인식의 논리적(형식적) 원리이다. 이는 모순율에 동반되지 않고, 오히려 모순율에 종속된다. 그렇지만, 이와 달리 “각각의 사물은 그것의 근거를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은 인식의 초월적(질료적) 원리이다. 아직까지 어떤 사람도 모순율로부터 (그리고 일반적으로 감성적 직관과 관계없는 순전한 개념들로부터)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고, 이는 증명되지조차 못하였다.²¹⁾

여기에서 쇼펜하우어는 논리적(형식적) 원리로서 사용되는 충분 근거율, 즉 근거Grund-귀결Folge 관계에서 파악되는 근거율과 초월적(질료적) 원리로서 사용되는 충분 근거율, 즉 원인Ursache-결과Wirkung 관계에서 파악되는 인과율을 서로 구별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충분 근거율의 두 의미 구별을 통해, 라이프니츠의 무구별자 동일성의 원칙 역시 올바르게 규정된다. 그러니까, 라이프니츠의 충분 근거율은 어디까지나 인식의 초월적(질료적) 원리가 아닌, 인식의 논리적(형식적) 원리이기에,²²⁾ 다시 말해 초월적-종합적 원칙

20) 그러니까, 개념들의 근거Grund-귀결Folge 관계에서 타당하게 적용되는 충분 근거율을 통해서만 라이프니츠의 무구별자 동일성의 원칙이 올바르게 도출되며, 사태들의 원인Ursache-결과Wirkung 관계에서 타당하게 적용되는 충분 근거율을 통해서만 라이프니츠의 무구별자 동일성의 원칙이 올바르게 도출되지 않는 것이기에, 위와 같은 충분 근거율의 두 의미 구별 없이 무조건적으로 충분 근거율을 사고Denken 영역에도, 또한 존재Sein 영역에도 적용하려 했던 라이프니츠의 철학 방법론은 수정되어야만 한다. 즉, 이제 지성 중에서만 타당하게 적용되는 충분 근거율과 감성 중에서만 타당하게 적용되는 충분 근거율은 서로 구별되어야만 하며, 아울러서 라이프니츠의 무구별자 동일성의 원리 역시, 이제 단지 지성 중에서만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지, 결코 감성 중 에까지 연장하여 적용될 수 없는 원리로서 규정되어야만 한다.

21) A. Schopenhauer, *Über die vierfache Wurzel der Satzes vom zureichenden Grund*, in *Sämtliche Werke*, hrsg. von W. von Löhneysen, Bd. 3, Frankfurt a. M., 1986, S. 35.

이 아닌, 논리적-분석적 원칙이기에, 이로부터 도출됐던 그의 무구별자 동일성의 원칙 역시, 결국에는 지성 중에서만 타당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이었다. 즉, 엄밀하게 말해,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에는 존재들의 연관까지 탐구하는 원리들²³⁾은 존재하지 않고, 한낱 개념들의 비교만을 탐구하는 원리들²⁴⁾이 존재할 뿐이다. 그렇기에, 개념들의 분석만을 통해, 사고 원리들과 존재 원리들을 아울러서 설명하려 했던 라이프니츠의 모순들은 고발되어야만 했고,²⁵⁾ 이를 위해 칸트 초월철학에서 고안됐던 장치들이 바로 반성개념이다. 4종 8개 반성개념 중에서도, 특히 일양성-상이성 반성개념 쌍을 통해 이제까지 살펴봤던 내용들에 주목하며, 재차 라이프니츠를 비판하는 아래 칸트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도록 하자.

만약 그것[충분 근거율]이 사물들에 대해 타당해야 하는 것이라면, 모든 사물들은, 단지 다른 사물들의 현존Existenz으로부터 나타나는 결과로서 간주되어야만 한다. 그렇지만, [라이프니츠의 철학에는] 이와 같이 생각되어야만 할 충분한 근거zureichender

22) 이는 라이프니츠의 철학에서 아래 내용들을 통해서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 우리가 주어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했다면, 술어의 개념은 또한, 그것에 귀속해있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 주어개념은 항상 술어개념을 포함해야 한다.

G.W. Leibniz, 『형이상학논고』: § 8.

23) 이는 곧, 초월적 반성과 초월 논리학에 기초하는 원리들을 의미한다.

24) 이는 곧, 논리적 반성과 일반 논리학에 기초하는 원리들을 의미한다.

25) 이성적 진리-사실적 진리[필연적 진리-우연적 진리]간의 구별, 또는 논리적 원칙-초월적 원칙[분석적 원칙-종합적 원칙]간의 구별 등이 서로 엄밀하게 지켜지지 않고, 모호하게 되는 모습들은 라이프니츠의 철학 곳곳에서 나타나며, 이는 결국 라이프니츠가 어떤 때는 신적 존재자의 관점에서, 어떤 때는 인간 존재자의 관점에서, 서로 번갈아가면서 그의 철학활동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 그러니까, 라이프니츠가 존재론적ontologisch 측면에서는 무한한 이성으로서의 신적 존재자를 그의 철학활동에서의 주제로 삼고 있지만, 인식론적 erkenntnistheoretisch 측면에서는 유한한 이성으로서의 인간 존재자를 그의 철학활동에서의 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모순이다.

Grund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형이상학의 진보』: XX-277).

결국 위의 인용문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것과 같이, 라이프니츠의 철학에서 충분 근거율도 이제, 모순율과 다름없이, 초월적-종합적 원칙으로서가 아닌, 논리적-분석적 원칙으로 사용됨으로써, 사태들의 원인-결과에는 관계하지 못하고서, 단지 개념들의 근거-귀결만을 분석하게 됐다. 다시 말해, 충분 근거율은 이제, “오직 분석판단만을 취급”(『형이상학의 진보』: XX-278)하는 원리로서 평가되었으며, 그렇기에 충분 근거율에 토대하여 정당성이 유지됐던 라이프니츠의 무구별자 동일성의 원칙 역시, 단지 분석원리로서만이 타당하게 됐다.

그렇다면, 단지 논리적-분석적 원칙으로 사용되어야만 했던 철학 원리들을 결국 초월적-종합적 원칙으로 사용함으로써,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에서 불거지게 됐던 모순들은 무엇인가? 이제, 잠시 칸트 목소리에 귀 기울여, “모든 철학자들 중에서도 가장 명민했던derscharfsichtigste”(A280=B336) 라이프니츠가, 그의 단자론의 전개 과정에서 어떤 잘못들을 저지르게 되는지를 탐구해 보도록 하자.

“한 개념에 보편적으로 귀속하거나 모순되는 것은, 그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한 것에도 귀속하거나 모순된다”²⁶[①](*全無律*)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논리 원칙을 변경하여 “한 보편개념allgemeiner Begriff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 개념 아래 속해있는 특수개념들besondere Begriffe에도 역시 포함되어 있지 않다”²⁷[②]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A280-281=B337).

여기에서 칸트는, 전통 논리학의 근본원리였던 [①]²⁸을 결국 [②]

26) 이는 논리식으로, “ $(X \rightarrow aBzw) \rightarrow (X \rightarrow bBzw)$ ”와도 같이 표현된다.

27) 이는 논리식으로, “ $\neg(X \rightarrow aBzw) \rightarrow \neg(X \rightarrow bBzw)$ ”와도 같이 표현된다.

28) 전유전무율은 여타 칸트 저술에서, “사태의 징표에 귀속하는zukommen 것은 또한 사태 자체에도 귀속하고, 사태의 징표에 모순되는widersprechen 것은 또한 사태 자체에도 모순된다nota notae est nota rei ipsius: repugnans

와 같이 제멋대로 바꾸어서 그의 단자론을 세우고자 했던 라이프니츠를 비판한다. 칸트에 따르면, [①]이 왜곡되어 드러났던 [②]는, 결국 라이프니츠가 전유전무율을 이에 대한 전건부정식²⁹⁾과 아무 모순 없이 호환되는 것이라고 착각함으로써 생겨나게 됐던 오류이다. 그러니까, “특수개념들³⁰⁾은 보편개념³¹⁾에서 생각되는 것 이상의 것을 자기 안에 포함하고 있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특수개념들이 되는”(A281=B337) 것임에도 불구하고, 라이프니츠는 이를 전적으로 간과하여, 결국 현실에서 “지성적 인식의 잘못된 체계”(A280=B336)를 세우게 됐던 것이다.³²⁾ 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전유전무율과 이에 대한 전건부정식의 예를 들어 살펴보자.

notae, repugnat rei ipsi”(IX-123)와도 같이 표현되고 있다.

29) 가언적 삼단논법hypothetical syllogism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 ㉓ 전건긍정modus ponens(MP):
 - ㉓ (S → P) → (Q → R) <대전제>
 - ㉔ (S → P) <소전제>
 - ㉕ (Q → R) <결론>

- ㉖ 후건부정modus tollens(MT):
 - ㉓ (S → P) → (Q → R) <대전제>
 - ㉔ ¬(Q → R) <소전제>
 - ㉕ ¬(S → P) <결론>

가언적 삼단논법은 위와 같이 크게 전건긍정식(MP)과 후건부정식(MT)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논리식에 따르는 모든 추론들은 결코 거짓일 수 없다. 다시 말해, 이 두 논리식에 따르는 모든 추론들은 필연적으로 참이다. 그렇지만, 위의 인용문에서 라이프니츠는 전통 논리학의 전유전무율[①]을 변형시켜 전건부정식[②]으로 뒤바꾸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유전무율[①]이 항상 참인 반면, 전건부정식[②]은 결코 항상 참이지가 않다. 그러니까, 라이프니츠는 전통 논리학의 전건긍정식[③]을 잘못 이용함으로써 전건을 부정하여 후건을 부정하는 오류[㉕], 즉 전건부정식의 오류와 전통 논리학의 후건부정식[⑥]을 잘못 이용함으로써 후건을 긍정하여 전건을 긍정하는 오류[㉔], 즉 후건부정식의 오류 가운데서, 결국 전자[㉕]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0) 예컨대, 사과, 오렌지, 딸기, 포도.

31) 예컨대, 과일.

32) S. Körner, *Op. cit.*, p.111.

- ㉠ 비이성성이 사람에게 귀속해있다면, 비이성성은 영수에게도 역시 귀속해있다.³³⁾ [참]
- $(nR \rightarrow Mz) \rightarrow (nR \rightarrow Yz)$ [참]
- ㉡ 비이성성이 사람에게 귀속해있지 않다면, 비이성성은 영수에게도 역시 귀속해있지 않다.³⁴⁾ [거짓]
- $\neg (nR \rightarrow Mz) \rightarrow \neg (nR \rightarrow Yz)$ [거짓]

- (□ nR: 비이성성)
- (□ Mz: 사람[즉, 보편개념]에게 귀속해있다)
- (□ Yz: 영수[즉, 특수개념]에게 귀속해있다)

여기에서 주목되어야만 하는 것은, 과연 [㉠]에서 [㉡]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가의 여부이다. 그렇지만, 위의 경우에, [㉠]에서 [㉡]이 필연적으로 도출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이미 <주석 29>를 통해 분명하게 밝혀졌듯이, [㉠]³⁵⁾과 [㉡]의 전건³⁶⁾으로부터 자연스레 [㉡]의 후건³⁷⁾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와 같이 전유전무율에 대한 전건부정 사례들에 기초해서 세워졌던 라이프니츠의 철학 체계는, “이 원칙과 함께, 이 원칙에서 발생하는 지성사용에서의 모든 모호성과 더불어서 무너지는 것이었고”(A281=B337), 결국 무너져야 하는 것이었다.

III

그렇다면, 위의 논의들이 일양성-상이성 반성개념 쌍을 통해 줄곧 비판되어 왔던 라이프니츠의 무구별자 동일성의 원칙과는 어떻게 연관되는 것일까? 이제, 이 물음에 대답하며, 지금까지 논의했던 내용

33) 이는 전유전무율의 사례이다.
 34) 이는 전유전무율에 대한 전건부정식의 사례이다.
 35) 비이성성이 사람에게 귀속해 있다면, 비이성성은 영수에게도 역시 귀속해있다.
 36) 비이성성이 사람에게 귀속해 있지 않다.
 37) 비이성성이 영수에게도 역시 귀속해 있지 않다.

들을 정리하여 마무리하도록 하자.

무구별자 [동일성]의 원칙은 본래, 사물 일반의 개념에서 특정한 구별이 마주쳐지지 않으면, 사물들 자신에서도 구별은 마주쳐질 수 없으며, 따라서 (질Qualität, 또는 양Quantität에서) 이미 개념상으로 서로 구별되지 않는 모든 사물들은 온전히 일양(數的으로 同一)하다는 전체에 기초하고 있다. (A281=B337)

그러니까, 칸트는, 라이프니츠의 무구별자 동일성의 원칙 역시, 앞서 이미 오류로서 판명됐던 전건부정식에 기초하는 원리로서 파악하고 있다. 왜냐하면, 무구별자 동일성의 원칙이란, 항상 “단지 [비본질적인] 시·공간적 차이 이외에도 [본질적인] 내적 구별의 원리 inneres Prinzip der Unterscheidung가 필연적으로 존재”³⁸⁾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결국 “사물 일반의 개념[사물 자체]에서 특정한 구별이 마주쳐지지 않으면, 사물들 자신[현상]에도 구별이 마주쳐질 수 없다”(A281=B337)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역시도 앞서 라이프니츠가 전유전무율을 이에 대한 전건부정식과 아무 모순 없이 호환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했던 사유들의 연장선상에서 취해졌던 원칙으로 파악되어야만 하며, 그렇기에 결국, 틀린 논리법칙들에 기초하여 세워져서 이제까지 그릇되게 주장되어 왔던 라이프니츠의 모든 철학 원리들은, 일양성-상이성 반성개념 쌍을 통해 비판되어, 정당하게 바로잡아져야 하는 것이었다.

38) G.W. Leibniz, 『신인간지성론』: Buch II, Kapitel xxvii, § 1.

참고문헌

- Copleston, F., (김성호 옮김), 『합리론』, 서울: 서광사, 1994.
- Dicker, G., *Kant's Theory of Knowledge*, Oxford: Oxford Univ. Press, 2004.
- Kant, I., *Gesammelte Schriften*, hrsg. von der Königlich Preuß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 // von der Deut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 zu Berlin, Bde. 1-24, 27-29, Berlin, 1900-.
- _____, *Kritik der reinen Vernunft*, hrsg. von R. Schmidt, Hamburg, 1956. (AA IV[1781], AAIII[1787])
- _____, (백종현 옮김), 『순수이성비판』, 서울: 아카넷, 2006.
- _____, *Welches sind die wirklichen Fortschritte, die die Metaphysik seit Leibnizens und Wolffs Zeiten in Deutschland gemacht hat?* (AA XX).
- Körner, S., (강영계 옮김), 『칸트의 비판철학』, 서울: 서광사, 1983.
- Leibniz, G.W., *Die philosophischen Schriften*, hrsg. von C.I. Gerhardt, Bde. 1-7, Berlin, 1875-1932.
- _____, *Monadologie*, hrsg. von H. Herring, Hamburg, 1982. (DpS VI).
- _____, *Neue Abhandlungen über den menschlichen Verstand*, hrsg. von E. Cassirer, Hamburg, 1971. (DpS V).
- _____, *Metaphysische Abhandlung*, hrsg. von H. Herring, Hamburg, 1991. (DpS V)
- _____, *The Leibniz-Arnauld Correspondence*, ed. by H.T. Mason, Manchester: Manchester Univ. Press, 1967. (DpS II)
- _____, *The Leibniz-Clarke Correspondence*, ed. by H.G. Alexander, Manchester: Manchester Univ. Press, 1956. (Dps VII).

Parkinson, G.H.R., "Kant as a Critic of Leibniz. The Amphiboly of Concepts of Reflection," in *Revue Internationale de Philosophie*, 35, Wetteren, 1981.

Schopenhauer, A., *Über die vierfache Wurzel des Satzes vom zureichenden Grunde*, in *Sämtliche Werke* (SW III), Frankfurt a. M., 1986.

백승환, 「칸트 초월철학에서 반성개념」, 서울대 문학석사학위논문, 2006.

윤선구, 「라이프니츠에 있어서의 의지 자유문제와 단자론」, 『철학』 제52집, 1997.